

사회

예체능 내신 반영 3단계로 줄여

광주 고교 입학전형 29일부터 시작
자공고 배정일 늦춰 선행학습 금지

오는 29일 과학고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12학년도 광주지역 고교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올해 입시는 기존 5단계로 내신을 산출하던 예체능(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나눠 점수에 반영하는 게 특징이다. 광주시교육청의 22일 고교전형 공고(jinhak.gen.go.kr)에 따르면 전기고로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차설비공고는 10월11일부터 3일간, 광주체육고와 예술고는 11월1일부터 접수

한다. 송원·보문·송덕 등 자율형 사립고와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특성화대안학교(동명고)는 11월21일부터 5일간 신청 받는다. 후기고인 일반계고, 자율형 공립고(상일여고·광주고·광주일고), 비평준화고(호남삼육고·세종고·광일고)는 12월20일부터 4일간 접수한다. 합격자 발표의 경우 과학고 등 특목고는 10월26일에서 11월29일 사이, 자사고 등은 12월2일, 후기는 12

월29일이다. 상일여고 등 자공고 3곳과 나머지 일반계고 39곳은 합격자 발표를 12월 말에 하지만 학교배정은 내년 2월3일로 통일, 입학전 선행학습을 금지했다. 전형방법은 광주과학고는 '자기 주도학습 전형' 등으로,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30% 이내 학생 중 추천으로 뽑는다. 일반계 학교 배정은 40%는 선지원(2개교 지방) 추천배정, 60%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무작위 추천배정(5개교 지방)으로 학생을 배치한다. 전기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대안특성화고)는 지원 고교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전형일자

2012 광주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일정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전기', '후기',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and various school types like '특목고', '자율형', '일반계고'.

와 모집지역에 관계없이 고교간 이중 지원은 금지되며, 전기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차설비고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에 지원 가능하다. 후기고인 평준화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과학중점고는 중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작성하여 시교육청에 접수한다. 비평준화고인 호남삼육고와 세종고, 광일고는 수험생이 지원학교에 원서를 내야 한다. 전기고등학교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성적까지 반영하며, 후기고등학교는 전체 학년 내신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weather icons.

“국민 신뢰 받는 검찰 노력”

김 학 의 광주교감장



“소해난파(兼襲那破·동자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54·사법연수원 14기) 신임 광주교감장은 22일 광주교고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확고한 검찰상 정립을 강조했다. 김 교감장은 취임사에서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비리, 국부 유출범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교감장은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형사사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김 교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검 연구관·충주지청장·춘천지청장·울산지청장·서울남부지청장·인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교·지검장, 전주지검장 인터뷰

“과잉·편파 수사 시비 불식”

주 철 현 광주지검장



22일 취임한 주철현(51·사법연수원 15기) 광주지검장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해 과잉·편파 수사 시비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지검장은 이날 “국민은 현재 검찰에 대해 부패척결과 분쟁의 종결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매주 개최해 주요 사건, 처리방향에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을 심사하고 검사는 이를 100% 수용함으로써 검찰의 과잉·편파수사 시비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해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고와 선교관대를 졸업한 주 지검장은 인천지검 검사와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대검 공안과과장·목포지청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창원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역 토착비리 엄단할 것”

임 권 수 전주지검장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임권수(53·사법연수원 16기) 전주지검장은 22일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처리와 빠른 갇는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은 지역사회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화산 출신인 임 지검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해남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광주교고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전남교육청, 특성화고 졸업생 7명 특채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10월 도내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7명을 일반직 9급(기술직)으로 특별채용한다. 채용예정 인원은 건축 3명, 전기 2명, 기계, 보건 각 1명씩이다. 대상은 도내 63개 특성화고 가운데 관련학과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등으로 필기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성적 상위 11% 이내 학생으로 주소가 전남 도내여야 한다. 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특성화고 출신 선발 관련 가능직(10급) 공무원을 뽑은 적이 있으나 일반직 채용은 처음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특성화 고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교육청으로서도 해당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술 전문가로 채용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추석 명절맞이 보청기 무료점검 안내' (Chuseok Festival Meeting Hearing Aid Free Checkup Notice) by KJHR, including dates, locations, and contact numbers.

Advertisement for '평화발효홍삼' (Peace Fermented Red Ginseng) products, featuring various ginseng products and their benefits.

Advertisement fo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2010 Korea New Knowledge Expert Award) for Park Man-sun, featuring food items and a restaurant promotion.